

국어의 상 해석 과정에 대하여*

우창현

(서강대학교)

Woo, Chang-hyun. 2003. On Process of Korean Aspectual Interpretation.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11(4), 123-141. The aim of this paper is to identify the importance of the elements such as time adverbs in aspectual interpretation so as to propose the appropriate basis for the interpretation of the Korean aspect. In addition, the fact that the lexical items including time adverbs may be connected to the two different levels according to their lexical properties is dealt. One level is the VP level in which the aspectual meaning is interpreted primarily from the concatenation of the grammatical units. The other is CP level in which the aspectual meaning is affected by sentential adverbs including frequency adverbs.

주제어(Key words): Aspect, Aspectual Interpretation, Grammatical Aspect, Adverb, Frequency Adverb.

1. 서론

기존의 상에 대한 논의에서는 어휘가 상 해석에 관여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영이는 그 영화를 보며 웃었다.’와 ‘영이는 그 영화를 본 지 한 시간만에 웃었다.’를 비교하면 시간부사어 ‘한 시간만에’가 결합한 후자의 경우에만 ‘시작’, 즉 ‘기동(inchoative)’의 상 의미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문법 요소뿐만 아니라 시간부사어와 같은 어휘들도 상 해석에 관여하는 경우가 있다.

이 글은 이러한 점, 즉 부사어나 시간부사어와 같은 어휘들이 상 해석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국어의 상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시간부사어가

*이 글이 가진 문제를 자세하게 지적하여 논문이 보다 체계적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심사위원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상 해석에 관여하는 경우 그 어휘의 특성에 따라 각각 관여하는 층위가 다르다는 점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한다.

논의의 필요에 의해 상에 대한 정의에 대해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상에 대해 Comrie(1976:3)에서는 ‘상은 상황의 내적 시간 구조를 바라보는 상이한 제 방법들’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Lyons(1995:322)에서는 상을 ‘상황의 (행위, 사건, 상태) 내적 시간 구성의 문법화의 결과’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상에 대한 기존의 정의에 대해 이 글에서는 상을 ‘상황이 포함하는 내부 시간 구조에 관점상이 결합함으로써 해석에 필요한 부분을 제한적으로 가시화하는 문법 범주’라고 정의한다. 필자가 상을 이렇게 정의하는 이유는 상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상황의 기본적인 내부 시간 구조가 필요하고 이러한 기본적인 내부 시간 구조에서 해석에 필요한 부분을 제한적으로 가시화하는 관점상도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상은 Comrie(1976)에서 ‘상황의 내적 시간 구조를 바라보는 상이한 제 방법들’로 정의한 이래 지금까지 ‘문법 범주’로 인식되어 왔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동안의 상에 대한 논의에서는 주로 상 의미를 문법상에 의해서만 해석해야 한다고 논의해왔다.¹²⁾ 그러나 상 해석을 단순히 문법상으로 국한해서 설명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다. 즉 구체적으로 상황의 시간 구조를 바라보는 관점을 나타내는 문법상이 결합하지 않았음에도 상 의미가 해석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문법상 이외에 상을 설명하는 또 다른 설명장치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경우가 된다.

1) 이 글에서는 상 해석에 관여하는 보조 용언 구성을 상 해석에 관여하는 어휘와 구분하기 위하여 문법상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이에 대해 이 글을 심사한 심사자께서는 시제 형태 ‘-았-’이나 ‘-느-’ 등도 상 해석에 관여하는 경우가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심사자의 지적대로 시제 형태들도 상 해석에 관여적인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었-’의 경우 ‘종결’의 상 의미와 관련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과거 시제의 의미에 의해 파생되는 경우일 뿐 이러한 경우만을 가지고 시제 형태를 상 의미를 나타내는 문법상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필자가 이처럼 시제를 문법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문법상은 시간 제약을 받지 않는 특성을 가져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즉 ‘-고 있-’이나 ‘-아 있-’과 같은 경우는 과거 상황에도 나타날 수 있고 현재 상황에도 나타날 수 있다. 시간 제약을 받지 않는 것이다. 이에 반해 시제 형태는 일정한 시제에만 나타날 수 있는 시간 제약을 가진다. 예를 들어 ‘-었-’의 경우는 ‘과거’ 상황에만 나타날 수 있다.

2) 기존 논의에서는 보조 용언 구성을 포함하는 문장을 복문으로 보기도 하고 단문으로 보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이 글에서는 보조 용언 구성을 상 해석과 관계되는 하나의 문법 단위로 보고 보조 용언 구성이 포함된 문장을 단문으로 전제하고 논의를 진행하도록 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문법적 필요성에 의해 먼저 국어의 상이 VP 내에서 해석되는 경우와 CP에서 해석되는 경우가 구분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논의하고 다음으로 각각의 단계에서 나타나는 상 해석 과정에 대해 논의하도록 한다.

VP 내에서의 상 해석은 주로 상이 문법상의 결합에 의해 해석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VP 내에 상황의 시간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사어나 시간부사어(구), 즉 VP 부사어(구)가 나타나게 되면 먼저 상황과 VP 부사어(구)가 결합하여 상황의 내부 시간 구조를 새로운 시간 구조로 파생시키고 이후에 상을 해석할 수 있는 문법상이 결합하여 상을 해석하게 된다.

다음으로 CP에서의 상 해석은 상 의미가 시간부사어, 즉 CP에 부가되는 부사어(구)에 의해 간접받는 경우의 상 해석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상은 VP 내에서 해석된다. 즉 VP 내에 포함되어 있는 어휘와 문법상에 의해 상 해석이 이루어진다. 이는 상 해석에 있어 필수적인 과정이다. 그러나 문장 내에 시간부사어나 빈도부사어와 같이 VP 내에서 이루어진 상 해석을 다시 새로운 상 의미로 파생시킬 수 있는 어휘가 나타나는 경우, 전체 문장의 상 의미는 이들을 포괄하는 CP 차원에서 해석되게 된다.

2. VP 시간부사어(구)³⁾와 CP 시간부사어(구)⁴⁾

상 해석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국어의 시간부사어(구)가 V'에 부가되는 경우도 있고 CP에 부가되는 경우도 있다는 점에 대해 논의하도록 한다. 이는 상 해석이 VP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와 CP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로 구분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하나의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먼저 V'에 부가되는 시간부사어(구)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3) 이 글에서는 V'에 기저 생성되는 시간부사구를 VP 시간부사구라고 부르기로 한다.

4) 이 글을 심사한 심사자께서는 이 글에서 정당한 근거없이 VP 부사어(구)와 CP 부사어(구)를 구분하고 또 이를 바탕으로 하여 VP 내에서의 상 해석과 CP에서의 상 해석이 필요하다고 논의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런데 필자는 2장에서 VP 부사어(구)와 CP 부사어(구)를 구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만일 필자가 2장에서 논의하고 있는 이러한 내용이 타당하다면 국어에서 VP 부사어(구)와 CP 부사어(구)는 구분되어야 하고 따라서 VP 내에서의 상 해석 과정과 CP에서의 상 해석 과정이 구분되어야 한다고 보는 필자의 입장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1) 가. 3일 동안_i 철수는 한 시간을 t_i 뛰었다.⁵⁾

나. 철수는 한 시간을 3일 동안 뛰었다.

(1가)에서는 중의적인 문장 의미가 확인된다. 즉 철수가 3일 동안 땀 총 시간이 한 시간이라는 의미와 철수가 3일 동안 매일 한 시간씩 총 3시간을 뛰었다는 의미가 확인된다.

이때 (1가)에서 철수가 3일 동안 땀 총 시간이 한 시간이라는 의미는 ‘3일 동안’이 외현적으로는 CP에 부가된 위치에 나타나지만 의미가 해석되는 단계에서는 V’에 부가되어 있는 ‘3일 동안’의 ‘흔적(trace)’에 의해 의미 해석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해석이다. 즉 의미해석부에서 시간부사구 ‘한 시간’이 시간부사구 ‘3일 동안’의 흔적 ‘ t_i ’를 선행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철수가 3일 동안 땀 총 시간이 3시간이라는 해석은 시간부사구 ‘3일 동안’이 CP에 부가된 위치 즉 시간부사구 ‘한 시간’ 보다 선행하는 위치에 있으면서 의미해석부에서 해석되는 경우이다. 그러므로 (1가)의 중의성은 시간부사구의 외현적인 이동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이는 (1나)가 ‘3일 동안’이 외현적인 이동을 겪지 않아서 V’에 기저 생성된 체로 의미해석부에서 해석되어 철수가 ‘3일 동안’ 땀 총 시간이 한 시간이라는 의미만 나오는 것과는 구별되는 경우이다. 그러나 시간부사구가 본유적으로 V’에 기저 생성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1가, 나) 두 예 모두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를 통해 ‘3일 동안’과 같은 ‘시간+동안’ 형태의 시간부사구는 V’에 기저 생성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⁶⁾

‘시간+동안’ 구성의 시간부사어(구)가 V’에 기저 생성된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예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5) 이 글을 심사한 심사자께서는 (1나)에서도 두 의미 해석이 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1나)에서 3일 동안 3시간을 뛰었다는 의미 해석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1나)의 ‘한 시간’을 ‘한 시간씩’으로 보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러나 이처럼 보지 않고 ‘한 시간’으로 제한해서 해석하는 경우는 이러한 해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6) 이 글에서는 목적어와 용언 어간이 V’를 이룬다고 보기 때문에 시간부사구가 V’에 부가되는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 (1가)의 경우는 ‘한 시간을 뛰-’가 V’가 된다. ‘한 시간을’과 같은 표현이 목적어일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최현배(1929/1999:260)을 참고하기 바란다.

(2) 가. 영이_i는 [[_{ADVP} [자기_{i/j} 선생님과 공부를 하던] 3시간 동안]_k 민수_j가_{t_k} 만 생각만 했다고] 말했다.

나. 영이_i는 자기_{i/sj} 선생님에게 [_{CP} 민수_j가 잤다고] 말했다.⁷⁾

(2가)에서 재귀사 ‘자기’는 ‘영이’와도 동지표 될 수 있지만 ‘민수’와도 동지표 될 수 있다. 이때 재귀사 ‘자기’가 ‘영이’와 동지표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왜냐하면 선행사 ‘영이’가 재귀사 ‘자기’를 선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재귀사가 선행사와 동지표 되기 위해서는 선행사가 재귀사보다 선행하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 그런데 (2가)에서 ‘민수’는 재귀사 ‘자기’보다 뒤에 위치한다. 그렇기 때문에 재귀사 ‘자기’는 ‘민수’와는 동지표 될 수 없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가)에서 재귀사 ‘자기’는 ‘민수’와도 동지표 될 수 있다. 이처럼 재귀사 ‘자기’가 ‘민수’와 동지표 될 수 있는 이유는 [_{ADVP} [자기 선생님과 공부를 하던] 3시간 동안]이 외현적으로는 ‘민수’보다 선행하는 위치에 있지만 기저에서는 ‘민수’보다 뒤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즉 ADVP가 내포문 V’에 부가되었다가 어순재배치 되면서 CP의 부가 위치로 이동하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이다.

ADVP가 내포문 V’에 부가된 경우, IP의 명시어인 ‘민수’가 재귀사 ‘자기’를 포함한 ADVP 전체를 선행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민수’는 재귀사 ‘자기’의 선행사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민수’가 재귀사 ‘자기’와 동지표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2가)에 대한 설명이 타당하다는 것은 (2나)를 검토함으로써 더욱 분명해진다. (2나)는 재귀사 해석에 있어 (2가)와 동일한 구조를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귀사 해석은 ‘영이’와만 동지표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경우 재귀사 ‘자기’를 ‘민수’와 동지표하게 되면 비문이 된다. 이는 (2나)의 경우는 내포문 IP의 명시어 위치에 있는 ‘민수’가 모문에 부가되어 있는 재귀사 ‘자기’를 선행하는 어떠한 절차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2나)는 재귀사 ‘자기’가 이동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민수’가 재귀사 ‘자기’의 선행사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2가)와 (2나)의 경우를 고려하면 (2가)의 [_{ADVP} [자기 선생님과

7) 이에 대해 이 글을 심사한 심사자에게서는 (2나)에서 지표가 ‘j’인 경우에도 문법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즉 ‘자기 선생님에게’가 ‘민수’가 뒤에 있다 이동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필자의 직관으로는 (2나)의 경우 ‘자기’를 ‘민수’와 동지표하는 것은 의미 해석상 자연스럽지 않다고 보인다. 즉 ‘자기 선생님에게’가 ‘민수’가 뒤에서 이동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공부를 하던] 3시간 동안]은 내포문 V'에 부가되어 기저 생성되었다가 IP의 명사어 '민수가' 앞으로 어순재배치 되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지금까지 VP 부사어의 특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다음은 CP 부사어의 특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CP 부사어는 외현적으로는 문장 내 어디에 위치하던지 간에 의미해석부에서는 항상 CP에 부가된 것으로만 해석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중의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3) 가. [CP 매일 철수는 [VP 운동을 한다.]]

나. 철수는 [VP 운동을 매일 한다.]

(3가, 나)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매일'은 V'에 부가되어 나타날 수도 있고, CP에 부가되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나 어느 경우든 의미는 하나로만 해석이 된다. 그 이유는 '매일'과 같은 시간부사어는 의미해석부에서 항상 CP에 부가된 형태로만 해석되기 때문이다.⁸⁾

지금까지 논의를 통해 국어에서 시간부사어(구)는 V'에 기저 생성되어 나타나는 경우와 CP에 부가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VP에서의 상 해석

VP에서의 상 해석은 VP 내에서 상 해석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하는데 [VP [부사어, 시간부사어(구)+상황]+문법상]과 같이 상황의 내부 시간 구조를 새로운 시간 구조로 파생시킬 수 있는 VP 부사어(구)가 나타나는 경우 먼저 이들 VP 부사어(구)와 상황이 결합하여 상황의 시간 구조를 새로운 시간 구조로 파생시키고 그 이후에 문법상이 결합하여 상이 해석되는 경우를 말한다.

먼저 VP 내에 있는 부사어가 상 해석에 관여하는 경우에 대해 논의하도록 한다.

8)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은 시간부사어 '매일'이 이처럼 자리 이동을 하면 그 흔적을 남기게 되는데 이러한 흔적이 의미 해석에 관여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느냐 하는 것이다. 만일 흔적이 의미 해석에 관여할 수 있다면 이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서는 비논항의 이동에 따른 흔적은 논리형식부에서 삭제 될 수 있다는 Lasnik & Saito(1992)의 주장을 참고할 수 있다.

(4) 가. ??철수는 [VP 가 있다.]⁹⁾

나. 철수는 [VP 공원에 가 있다.]¹⁰⁾

(4가)가 어색한 반면 (4나)가 상대적으로 덜 어색한 것은 ‘동사(용언)’과 ‘문법상’의 관계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4가)와 (4나) 모두 동일한 동사(용언)에 동일한 문법상이 결합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들이 보이는 차이에 대해서는 다른 설명 방법이 필요하게 된다. 그러면 왜 이 두 예문이 이러한 차이를 보이는지 그 이유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다.

먼저 (4가)는 (4나)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색한 표현이 된다. 이는 ‘가다’에는 ‘결과 지속(resultative)’의 시간 구조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결과 지속’의 시간 구조를 필요로 하는 문법상 ‘-아 있-’이 결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4나)는 (4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연스러운 표현이 된다.

그런데 (4가)와 (4나)를 비교하면 (4나)에는 (4가)에 없는 부사어 ‘공원에’가 더 들어가 있음이 확인된다. 이때 부사어 ‘공원에’는 ‘가다’ 동사의 동작 지향점으로서의 ‘대상’이 된다. 이처럼 문장에 구체적인 동작의 지향점이 나타나는 경우, 그 동작의 지향점은 동작이 완성되는 목표점을 지시하게 된다. 따라서 이 경우는 동작이 목표점에서 완성될 수 있음을 나타내게 되어 동사의 시간 구조에 ‘완성점’을 포함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동작의 대상은 동작의 결과가 그 동작의 대상에서 지속되고 있는 것까지 나타낼 수 있어 동사의 시간 구조에 ‘결과 지속’까지 포함할 수 있게 된다.¹¹⁾ 이러한 이유로 ‘공원에 가다’는 ‘완성점’과 ‘결과 지속’의 시간 구조를 내부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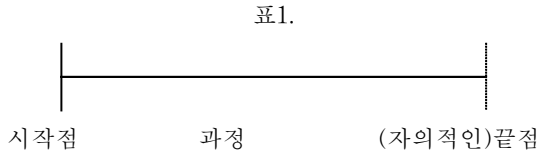
9) 이 경우 (4나)의 ‘공원에’에 대응되는 어구가 상정될 수 있는 화용적 상황이 주어지면 어색함은 사라진다. 다만 이 글에서는 아무런 화용적 상황이 주어지지 않을 경우, (4가) 보다는 (4나)가 상대적으로 더 자연스럽다고 보고 그렇다면 왜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지에 대해 설명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도록 한다.

10) 이 글을 심사한 심사자께서는 이 예문에 나타나는 ‘-아 있-’ 구성을 보조 용언 구성이 아닌 접속 구성으로 보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아직까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다. 즉 학자에 따라 보조 용언 구성이라고 보는 경우와 접속 구성이라고 보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러나 ‘-아 있-’ 구성에 의해 ‘결과 지속’의 의미가 나타나는 것만은 확실하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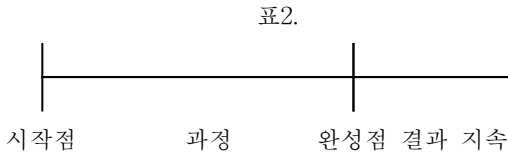
11) ‘공원에 가다’에 ‘결과 지속’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공원에 간 동작의 결과가 지속됨을 부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통해 확인된다. 즉 ‘*철수는 공원에 가 있다. 그런데 다 가지는 못했다’와 같은 경우는 비문이 된다. 이는 ‘결과 지속’을 포함하지 않는 ‘행위’ 동사와는 구별되는 특성이다. ‘행위’ 동사 ‘듣다’인 경우는 ‘영이는 어제 오랜만에 좋아하는 가수의 음악을 들었다. 그런데 갑자기 정전이 되어서 다 듣지는 못했다’와 같이 선행절에 대한 부정이 가능하다.

구조로 포함할 수 있게 된다.

이를 도식화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가다’의 시간 구조는 다음과 같이 도식화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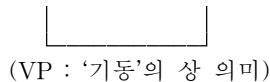
이러한 ‘가다’에 ‘공원에’가 결합하면 사정이 달라진다. ‘공원에’가 ‘가다’의 시간 구조를 다음과 같이 파생시키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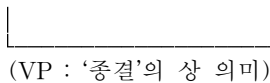
결국 ‘공원에 가다’의 시간 구조는 (표2)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시작점, 과정, 완성점, 결과 지속’이 된다. 이처럼 동사의 시간 구조는 시간 구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부사어(구)의 결합에 의해 새로운 시간 구조로 파생될 수 있다. 그런데 이처럼 시간 구조가 새롭게 파생되는 경우 역시 상 해석은 파생된 시간 구조와 문법상의 결합 관계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4나)의 상 해석은 파생된 시간 구조와 결합한 문법상 ‘-아 있-’에 의해 ‘결과 지속’으로 나타난다.

다음 예 역시 VP에서 상 해석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이다.

(5) 가. 영이는 [VP 한 시간만에야 겨우 웃었다.]



나. 철수는 [VP 한 시간만에 장난감 자동차를 만들었다.]



(5가)는 ‘웃다’와 완성 시간부사구 ‘한 시간만에’가 결합한 경우이다. 이 경우 상 의미는 ‘기동(起動)’으로 나타난다. 즉 웃는 동작이 시작되었음을 나타낸다. 이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면 먼저 (5가)에서 ‘한 시간만에’는 ‘웃다’와 결합하여 ‘웃다’의 시간 구조에서 ‘시작’의 시간 구조를 강조하게 된다.¹²⁾ 그런데 (5가)에는 상 해석을 구체화할 수 있는 문법상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문법상이 결합하지 않은 경우는 상 해석에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상 해석 이론에 따라 (5가)는 상 해석에 중립적이게 된다. (Smith(1991) 참조) 이처럼 상 해석에 중립적이게 되면 상 의미는 상황과 다른 어휘 등에 의해 결정되게 되는데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5가)는 ‘시작’의 시간 구조가 완성 시간부사구에 의해 강조된 경우이기 때문에 상 해석에 중립적이게 되는 경우 ‘시작’, 즉 ‘기동(起動)’의 상 의미로 해석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반해 (5나)는 ‘만들다’와 시간부사구 ‘한 시간만에’가 결합한 경우이다. 그리고 이 역시 구체적인 문법상은 나타나지 않은 경우이다. 그런데 (5나)의 상 의미는 ‘종결’로 해석된다. (5나)가 이처럼 ‘종결’의 상 의미로 해석이 되는 이유는 ‘만들다’의 경우는 상황의 완성을 나타내는 ‘완성점’을 내부 시간 구조로 포함하고 있는데 이처럼 ‘완성점’을 내부 시간 구조로 포함하고 있는 상황의 경우 완성 시간부사구가 결합하게 되면 그 완성 시간부사구는 상황의 ‘완성점’을 지시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구체적인 문법상이 결합하지 않아 상 해석에 중립적이게 되면 이러한 ‘완성점’의 시간 구조가 구체화되어 ‘종결’의 상 의미로 상 해석이 되는 것이다.

만일 (5) 예에 구체적인 문법상이 결합하게 되면 상 해석은 지금까지 논의와는 다르게 이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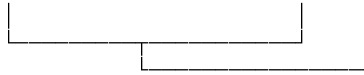
(5) 가. 영이는 [VP 한 시간만에야 겨우 웃고 있다.]



(VP : ‘진행’의 상 의미)

12) ‘웃다’의 경우는 상황의 완성을 나타내는 ‘완성점’을 내부 시간 구조로 포함하지 못하고 언제든지 필요에 의해 동작을 끝낼 수도 있고, 다시 시작할 수도 있는 ‘자의적인 끝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한 시간만에’와 같이 일반적으로 상황의 완성을 나타내는 시간부사구가 결합하는 경우 동작의 완성을 지시하지 못하고 동작의 시작을 나타내게 된다. 그러므로 ‘완성점’을 내부 시간 구조로 포함하고 있지 않은 ‘행위’ 동사(걷다, 보다, 웃다 등)들인 경우 시간부사구 ‘한 시간만에’와 결합하면 ‘시작점’만을 나타내어 ‘기동(起動)’의 상 의미로 해석되게 되는 것이다.

나. 철수는 [VP 한 시간만에 장난감 자동차를 만들고 있다.]



(VP : '진행'의 상 의미)

(5'가)는 (5가)와 동일한 상황에 '-고 있-'이 결합한 경우이다. 이 경우 상 의미는 '진행'으로 나타난다. 이는 '웃다'와 결합한 완성 시간부사구 '한 시간만에'가 동작의 시작을 강조한다해도 구체적인 문법상이 결합하게 되면 완성 시간부사구는 단순히 동작의 시작되는 시점만을 지시하게 되고 상 의미는 구체적인 문법상에 의해 '진행'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5나')는 (5나)와 동일한 상황에 문법상 '-고 있-'이 결합한 경우로 상 의미는 '진행'이 된다. 이 경우 역시 완성 시간부사구는 동작의 시작되는 시점만을 지시한다. 이처럼 문법상은 모든 상 해석에 있어 중심이 된다. 즉 다른 부사어나 시간부사어(구) 등에 의해 상 의미가 제한되어 나타난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문법상이 결합한 경우, 상 의미는 문법상이 나타내는 의미로 해석되어 나타나게 된다.

다음은 이러한 문법상들이 VP 내에서 상 해석에 관여하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고 있-'에 의해 상 해석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다.¹³⁾

(6) 가. 나는 [VP 그 때 서울로 갔다.]

나. 나는 [VP 그 때 서울로 가고 있었다.]

(6가)와 (6나)를 비교하면 (6나)에는 '-고 있-'이 실현되어 있지만 (6가)에는 '-고 있-'이 실현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를 제외하고 두 문장의 차이는 없다. 그러므로 (6가)와 (6나)를 비교해서 확인되는 의미 차는 결국 '-고 있-'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고 있-'이 결합하지 않은 (6가)에서는 '그 때'로 지시되는 과거 상황에 대한 단순한 진술의 의미만이 확인되는데 반해 '-고 있-'이 결합한 (6나)에서는 과거에 상황이 언제 시작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때' 당시 상황이 '진행' 중

13) 이처럼 문법상에 의해 상 의미가 해석되는 것을 VP에서의 상 해석이라고 보는 이유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 글에서는 '-고 있-', '-아 있-'과 같은 문법상을 상 해석을 위한 하나의 문법 단위로 보기 때문이다. 즉 '-고 있-', '-아 있-'이 포함된 문장을 단문으로 보기 때문에 VP에서의 상 해석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었다는 의미까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고 있-’은 ‘진행’의 상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기본 의미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¹⁴⁾ 이처럼 ‘-고 있-’에 의해 상 의미가 해석되는 것 역시 VP 내에서의 일이다. 즉 VP에서의 상 해석이 된다.

다음은 ‘-아 있-’에 의해 상 해석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7) 가. 철수는 [VP 집에 갔다.]

나. 철수는 [VP 집에 가 있었다.]

(7가)와 (7나)를 비교하면 (7가)에는 ‘-아 있-’이 결합하지 않았는데 반해 (7나)에는 ‘-아 있-’이 결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두 문장에서 의미 차이가 확인된다면 이는 ‘-아 있-’의 의미에 따른 경우라고 해야 한다. 이러한 논의를 참고하며 (7가)와 (7나)를 비교하면 ‘-아 있-’이 결합한 (7나)에서만 ‘결과 지속’의 의미가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아 있-’은 ‘결과 지속’의 상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기본 의미라는 것이 확인된다.¹⁵⁾ 이처럼 ‘-아 있-’에 의해 상 의미가 해석되는 것 역시 VP 내에서 상 해석이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다음은 ‘-곤 하-’에 의해 상 해석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8) 가. 영이는 [VP 도서관에서 공부한다.]

나. 영이는 [VP 도서관에서 공부하곤 한다.]

14) ‘-고 있-’이 ‘진행’의 상 의미를 나타낸다는 것은 ‘결과를 부정적으로 추론하는 문장과의 결합 관계’, 그리고 ‘순간 동사’와의 결합계약 등을 통해 확인된다. 즉 ‘-고 있-’이 나타내는 상 의미가 ‘진행’이기 때문에 ‘-고 있-’은 ‘-아 있-’과 달리 ‘-고 있-’에 의해 나타나는 상 의미를 부정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고 있-’은 ‘진행’의 의미를 포함하지 못하는 순간 동사와는 결합하지 못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우창현(1997)을 참고하기 바란다.

15) ‘-아 있-’에 의해 나타나는 ‘종결’의 상 의미는 ‘선행절에 대한 부정적 추론을 나타내는 문장을 접속할 수 있는가 하는 접속문 형성 가능성’과, ‘시폭을 나타내는 과정 시간부사어들과의 호응 관계’ 등을 통해 검증된다. 즉 ‘-아 있-’에 의해 종결된 상황은 이미 종결된 경우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정적인 추론이 불가능하게 된다. 그리고 상황 변화의 의미를 나타내는 시간부사어들과의 결합도 불가능하게 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우창현(1997)을 참고하기 바란다.

면 (8'가)는 단순히 영이가 도서관에서 공부한다는 사실만을 진술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상 해석에 중립적이게 된다는 것이다. 이때 상 해석에 중립적이라는 의미는 상 해석에 관해 열려 있다는 뜻이 된다. 즉 구체적인 문법상 형태가 나타나면 언제든지 그 문법상이 나타내는 상 의미로 해석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이는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다'와 같은 경우는 '-고 있-'에 의해 '진행'의 상 의미가 나타나게 된다.

이에 대해 (8'나)는 문법상 '-곤 하-'가 직접 상황(동사)과 결합함으로써 상 의미가 '반복(iterative)'으로 해석되는 경우이다. 이처럼 상 의미를 구체적으로 가시화할 수 있는 문법상이 직접 상황(동사)과 결합하게 되면 문장의 구체적인 상 의미가 해석되게 된다.

다음은 상 해석에 관여하는 문법상이 겹쳐 나타나는 경우이다. 먼저 문법상 '-고 있-'과 문법상 '-곤 하-'가 함께 나타나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9) 영이는 [VP 학교로 가고 있곤 했다.]

(9)는 동사 '가다'와 '-고 있-'이 먼저 결합하고 이에 다시 '-곤 하-'가 결합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상 의미는 '-고 있-'과 '-곤 하-'에 의해 '(진행) 반복'이 된다. 즉 '-고 있-'이 먼저 상 해석에 관여하여 '진행'의 상 의미를 나타내고 다음으로 '-곤 하-'가 상 해석에 관여하여 '반복'의 상 의미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이처럼 상 해석에 관여하는 문법상이 겹쳐 나타나는 경우는 상황과 결합하는 순서대로 상 해석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런데 이처럼 문법상인 '-고 있-'과 '-곤 하-'가 함께 나타나는 경우 역시 상 해석이 이루어지는 것은 VP에서의 일이라고 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 두 문법상이 모두 상 해석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문법상 '-아 있-'과 문법상 '-곤 하-'가 겹쳐 나타나는 경우이다.

(10) 영이는 집에 손님이 올 때면 [VP 학교에 가 있곤 했다.]

(10)은 '학교에 가다'와 '-아 있-'이 먼저 결합하고 이후에 다시 문법상 '-곤 하-'가 결합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상 의미는 '-아 있-'과 '-곤 하-'에 의해 '(결과 지속) 반복'이 된다. 이처럼 '-아 있-'과 '-곤 하-'가 함께 나타나는 경우 역시 상 의미는 상황과 결합하는 문법상의 순서에 따라 해석되게 된다. 그리고 이 역시 VP 내에서 상 해석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된다.

4. CP에서의 상 해석

다음은 VP에서 이루어진 상 해석을 새로운 상 의미로 파생시킬 수 있는 시간부사어와 빈도부사어 등이 결합한 경우로 VP에서의 상 해석과는 별도로 CP에서의 상 해석이 필요한 경우이다.

(11) 가. [CP 철수는 매일 [VP 체육관에서 운동한다.]]

나. [CP 철수는 아르바이트 때문에 금요일마다 [VP 서점에 간다.]]

(11가)는 반복의 상 의미가 나타나는 경우이다. (11가)에서 ‘반복’의 상 의미를 나타내는 것은 VP 밖의 시간부사어 ‘매일’이다. 즉 VP 밖 시간부사어 ‘매일’이 VP와 결합하여 전체 문장의 상 의미를 ‘반복’으로 파생시키고 있는 것이다. (11나) 역시 ‘반복’의 상 의미가 나타나는 경우로, ‘반복’의 상 의미는 VP 밖 빈도부사어 ‘금요일마다’에 의해 나타난다. 즉 VP와 VP 밖 빈도부사어 ‘금요일마다’가 결합하여 전체 문장의 상 의미를 ‘반복’으로 파생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11가)에서 ‘반복’의 의미가 확인되는 것은 (11가)의 VP 밖 시간부사어 ‘매일’이 구체적인 문법상은 아니지만 상 해석에 관여적이어서 VP의 상 의미를 ‘반복’으로 파생시키는 특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VP 밖 시간부사어 ‘매일’이 이처럼 상 해석, 특히 ‘반복’에 관여적일 수 있는 이유는 ‘매일’이 ‘하루하루(반복된다)’의 의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매일’이 ‘하루하루 계속해서’의 의미를 나타내서 ‘반복’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가능성을 함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VP 밖 시간부사어나 빈도부사어 등이 상 해석에 관여한다는 사실은 (11나)에서도 확인된다. 즉 상 해석에 관여적인 VP 밖 빈도부사어 ‘금요일마다’가 결합한 (11나)에서 ‘반복’의 상 의미가 나타나는 것은 VP 밖 빈도부사어 ‘금요일마다’가 ‘매주 금요일에 반복해서’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반복’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가능성을 함의하고 있기 때문이다.¹⁸⁾

18) 이러한 시간부사구나 빈도부사구 등이 ‘반복’의 상 의미를 나타낸다는 것은, 앞서 ‘-곤 하-’의 경우에서처럼, 이들이 ‘형용사’, ‘일회성 동작 동사’, 그리고 ‘진리를 나타내는 표현’과 결합할 수 없다는 것을 통해서 확인된다. 즉 이들 시간부사구나 빈도부사구가 결합되어 나타나는 상 의미가 ‘반복’이 되기 때문에 ‘반복’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형용사나 일회성 동작동사(‘죽다’ 등) 그리고 진리를 나타내는 표현 등과 결합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11가, 나)를 CP에서의 상 해석이 필요한 경우라고 보는 이유는 이
들에서 나타나는 ‘매일’과 ‘일요일마다’가 VP 밖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 예문 역시 CP에서의 상 해석이 필요한 경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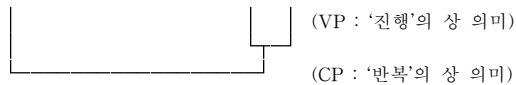
(12) 가. [CP 철수는 매일 [VP 할머니 댁에 가고 있다.]]

나. [CP 철수는 일요일마다 [VP 북한산으로 등산을 가고 있다.]]

(12가)는 문법상 ‘-고 있-’과 VP 밖 시간부사어 ‘매일’이 함께 나타나는 경
우이고 (12나)는 문법상 ‘-고 있-’과 VP 밖 빈도부사어 ‘일요일마다’가 함
께 나타나는 경우이다. 이 경우 (12가)에서의 상 의미는 두 단계에서 해석
된다. 먼저 VP 내에서의 상 의미는 동사 ‘가다’와 문법상 ‘-고 있-’의 결합
에 의해 ‘진행’이 되고 이후 CP에서의 상 의미는 VP 밖 시간부사어 ‘매일’
에 의해 ‘반복’이 된다. 그러므로 (12가) 전체 문장의 상 의미는 ‘(진행) 반
복’이 된다. (12나)에서의 상 의미 역시 두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먼저 VP 내에서의 상 의미는 동사 ‘가다’와 문법상 ‘-고 있-’의 결합에 의
해 ‘진행’이 되고 이후 CP에서의 상 의미는 VP 밖 빈도부사어 ‘일요일마다’
에 의해 ‘반복’이 된다. 그러므로 (12나) 역시 전체 문장의 상 의미는 ‘(진
행) 반복’이 된다.

이러한 논의를 정리하여 도식화해 보이면 다음과 같다.

(12') 가. [CP 철수는 매일 [VP 할머니 댁에 가고 있다.]]



나. [CP 철수는 일요일마다 [VP 북한산으로 등산을 가고 있다.]]



위 도식은 (12'가)와 (12'나) 두 경우 모두 VP와 CP 두 층위에서 상 해석
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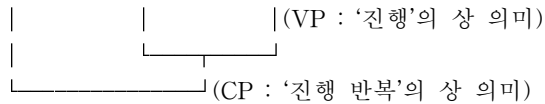
다음은 상 의미에 관여할 수 있는 어휘가 하나 이상 나타나는 경우에 대

해 논의하기로 한다.

(13) [CP 철수는 매일 [VP 한 시간 동안 웃는다.]]

(13)에는 상 의미를 제한하여 드러내는 문법상이 없다. 그런데도 ‘반복’의 상 의미가 나타난다. 그런데 이 예문에서 상 의미에 관여할 수 있는 어휘는 VP 밖 시간부사어 ‘매일’과 VP 내 시간부사어 ‘한 시간 동안’이다. 이 경우 상 의미는 어휘에 의해 간접받아 나타나는 경우이기 때문에 각각의 어휘가 어느 단계에서 상 해석에 관여하여 ‘반복’의 상 의미를 나타내는지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도식화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3') [CP 철수는 매일 [VP 한 시간 동안 [웃는다.]]]



(13')의 경우 우선 VP에서의 상 의미는 중립적이게 된다. 왜냐하면 이 문장에는 상 의미를 해석하기 위한 어떠한 문법상도 결합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예문에는 상 의미에 관여할 수 있는 어휘가 두 개나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전체 문장의 상 의미는 상황과 이들 어휘와의 상관성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앞서 상 의미를 해석하는데 있어 VP에서의 상 해석은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논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VP에서의 상 해석 과정을 보면 먼저 VP 내에는 상 해석에 관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문법상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상 해석에 관여할 수 있는 시간부사구 ‘한 시간 동안’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상 해석은 VP 내 시간부사구 ‘한 시간 동안’과 상황과의 결합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한 시간 동안’은 일반적으로 상황의 시간 구조에서 ‘진행’의 시간 구조와 상관성을 갖는다.(우창현(1997) 참고) 즉 상황의 진행과 관련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VP 내에서의 상 해석은 ‘진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CP에서의 상 해석은 VP 밖 시간부사어 ‘매일’이 VP와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매일’에 의해 ‘반복’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이 문장에서 어휘 요소에 의해 파생될 수 있는 상 의미는 전체적으로 ‘(진행) 반복’이 된다.

5. 결론

기존의 상에 대한 논의에서는 어휘가 상 해석에 관여한다는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 글은 부사어나 시간부사어, 그리고 빈도부사어 등이 상 해석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밝히어 국어의 상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국어의 시간부사어(구)가 VP 내에 기저 생성되는 경우와 CP에 부가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있음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리고 국어의 상은 먼저 VP 내에 포함되어 있는 문법상과 부사어, 시간부사어(구) 등에 의해 해석되는 것으로 논의하였다. 그리고 이처럼 VP에서 상 해석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VP에서의 상 해석으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문장에 상 해석에 관여하는 CP 시간부사어나 빈도부사어 등이 VP와 결합하여 나타나는 경우 전체 문장이 나타내는 상 해석은 CP에서 이루어진다고 논의하였다. 그리고 이를 CP에서의 상 해석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VP에서의 상 해석은 VP 내에서 상 해석이 이루어지는 경우로 주로 상이 문법상의 결합에 의해 해석되는 경우라고 보았다. 그러나 VP에서 상황의 시간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사어나 시간부사어(구)등이 나타나게 되면 먼저 상황과 시간부사어(구)가 결합하여 상황의 내부 시간 구조를 새로운 시간 구조로 파생시키고 이후에 상을 해석할 수 있는 문법상이 결합하여 상을 해석하는 것으로 논의하였다. 그러나 상을 해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문법상이 결합하지 않는 경우는 상황과 상 의미에 관여할 수 있는 어휘들에 의해 상 해석이 이루어진다고 논의하였다. ‘목표(Goal)’의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어나 ‘완성(completion)’의 시간부사어 등이 상황과 결합하여 상황의 시간 구조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이외에도 구체적인 문법상에 의해 상 해석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VP에서의 상 해석으로 구분하였다.

다음으로 CP에서의 상 해석은 CP에서 상 해석이 이루어지는 경우로 상 의미가 시간부사어나 빈도부사어 등에 의해 간접받는 경우를 말한다. ‘매일’과 같은 시간부사어나 ‘금요일마다’와 같은 빈도부사어가 나타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이처럼 상 해석의 층위를 구분하는 것은 부사어, 시간부사어(구), 빈도부사어 등이 상 해석에 관여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또 이

들 부사어, 시간부사어(구)와 빈도부사어 등이 상 해석에 관여하는 경우 그 적용되는 층위가 다르다는 것을 밝히어 국어의 상이 보다 체계적으로 해석되어야 함을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강기진. (1985). 진행형 '-고 있다'의 의미. *홍익어문4*, 9-59.
- 고영근. (1980). 국어 진행상 형태의 처소론적 해석. *어학연구 16(1)*, 42-56.
- 김성화. (1991). *국어의 상 연구*. 서울: 한신문화사
- 김종도. (1993). 우리말의 상 연구. *한글 219*, 33-58.
- 김종도. (1996). 도움 움직임 '오다/가다'의 상적 의미. *한글 233*, 137-160.
- 김차균. (1990). *우리말 시제와 상 연구*. 서울: 태학사.
- 김홍수. (1977). 계기의 '-고'에 대하여. *국어학 5*, 113-136.
- 박덕유. (1999). 상의 본질적 의미와 동사의 자질에 대한 재고찰. *국어학 33*, 177-212.
- 박진호. (1994). 중세국어의 피동적 '-어 잇-' 구문. *주시경학보 13*, 162-167.
- 성광수. (1976). 존재(동)사 '있다'에 대한 재고. *강북수박사회잡논문집*. (pp.109-134) 서울: 형설출판사.
- 옥태권. (1988). *국어 상 조동사의 의미 연구*. 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 우창현. (1997). *제주 방언의 상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 이남순. (1981). 현대국어의 시제와 상에 대한 연구. *국어연구 46*. 서울대학교.
- 이남순. (1987). '에', '에서'와 '-어 있다', '-고 있다'. *국어학 16*, 567-596.
- 이승욱. (1996). *국어 형태사 연구*. 서울: 태학사.
- 이지양. (1982). 현대국어의 시상형태에 대한 연구. *국어연구 51*, 서울대학교.
- 이필영. (1989). 상형태와 동사의 상적 특성을 통한 상의 고찰. *주시경학보 3*, 127-153.
- 이호승. (1997). 현대국어의 상황 유형 연구. *국어연구 149*, 서울대학교.
- 이호승. (2001). 국어의 상체계와 보조 용언의 상적 의미. *국어학 38*, 209-240.
- 이효상. (1995). 다각적 시각을 통한 국어의 시상 체계 분석. *언어 20(3)*, 207-250.
- 장석진. (1973). 시상의 양상: '계속' '완료'의 생성적 고찰. *어학연구 9(2)*, 58-72.
- 정문수. (1982). *한국어 풀이씨의 상적 속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

울대학교.

- 정태구. (1994). '-어 있다'의 의미와 논항구조. *국어학* 24, 203-230.
- 조민정. (2000). *국어의 상에 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최동주. (1995). *국어 시상체계의 통시적 변화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최현배. (1929/1999). *우리말본*. 서울: 정음문화사.
- 한동완. (1996). *국어의 시제 연구*. 서울: 태학사.
- 한동완. (1999가). 국어의 시제 범주와 상 범주의 교차 현상. *서강인문논총* 10, 165-192.
- 한동완. (1999나). '-고 있-' 구성의 중의성에 대하여. *한국어어미학* 5, 215-248.
- 한동완. (2000). '-어 있-' 구성의 결합 제약에 대하여. *형태론* 2(2), 257-288.
- 홍윤기. (2002). 상적 의미의 두 요소. *어문연구* 30(2)호, 59-92.
- 홍윤기. (2002). *국어 문장의 상적 의미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 Binnick, R. (1991). *Time and the Verb*.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Comrie, B. (1976). *Aspec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yons, J. (1977). *Semantics 2*.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mith, C. S.(1991). *The Parameter of Aspect*. Dordrecht: Kluwer Academic Publishers.
- Vendler, Z. (1967). *Linguistics in Philosophy*.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 Klein, W. (1994). *Time in Language*. London/New York: Routledge.

우창현

411-380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 호수대우아파트 101동 602호

이메일: wooch@sogang.ac.kr

Received: 30 September, 2003

Revised: 3 November, 2003

Accepted: 14 December, 2003